



강 개 순
동산육영회 이사장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동산의 미래를 창조합시다.

개교 70년은 뜻 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70년사의 간행은 동산인의 의무로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든 이름을 지닌 모든 것은 마땅히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라온 것이라면 더욱 그 존재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우리 동산학원은 요즘처럼 혼한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구색 맞추듯 짝어낸 학교가 아닙니다. 또 투자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세워진 회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와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배움터입니다.

〈동산 70년사〉에는 선각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곳곳에 시련을 극복해 낸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빛을 발하는 훌륭한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38년 7월 14일, 김영배, 구백서, 유창호 세 분의 선각자들께서 처음 인가를 받아 '무덕관'에서 수업을 시작하셨고, 김운복, 유근성, 이흥선, 김세완, 김종섭 다섯 분의 유지들께서 송림동에 터를 잡고 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최승우선생께서는 전 재산을 회사하시어 재단을 설립하심으로써 굳건한 반석 위에 동산을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재단이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진에 20만평의 염전을 만들고, 가평에 50여만 평의 조림사업을 하시며 재단 살림을 튼튼하게 만드신 분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끊임없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신 분들의 땀방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70년 역사의 동산은 이제 4만여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 중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분들 모두 애교심이 강하고 신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교를 향한 이분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열정은 동창회 주관 행사 때마다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직 '東山'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무던히도 '東山'을 가슴에 가득 끌어안고 있다는 것.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는 감동입니다. 매년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합니다. 후배들을 위하여 매년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선뜻 희사하시는 이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동산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는 직장, 학생들이 불편 없이 즐겁게 공부하는 곳,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칭송하는 명문 학교로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시설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東山'의 미래를 창조하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동산은 무궁하게 발전합니다.